금수강산

3

주체104(2015)
루계 제307호 월간

 ISSN 1727-9062

세월이야 가보라지

2.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냐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
선군세상 복을 누려 구십환갑 노래하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3.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차 례

조국찬가 울리는 금수강산

지난해 마가을 우리의 취재차가 자강도의 오가산령길에 올랐을 때였다.

포장도로 못지 않게 잘 닦은 령길을 따라 차를 달리느라니 우리의 눈앞으로 하늘을 치받을듯 높이 자란 나무들이 언듯언듯 지나갔다. 마치도 오가산의 밀림이 우리를 반기는것만 같아 길옆에 있는 한 쉼터에서 우리는 차를 멈추었다. 그런데 그옆에 550년이상 자란 조선의 조상잣나무가 거연히 서있었다. 그로부터 얼마간 걸음을 옮기니 거기에는 1 100년이상 자란 오가산주목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있었다. 그 주변에는 단풍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느릅나무 등이 호위병마냥 빙 둘러 자라고있었고 그 거목들의 여기저기에는 팔뚝보다 더 굵어보이는 다래넝쿨들이 칭칭 휘감겨있었다. 또 청서와 다람쥐들은 그 줄기를 타고 분주히 오가고…

볼수록 장관이였다.

우리는 발목까지 푹푹 잠기는 해묵은 락엽을 밟으며 오가산의 원시림구역에 들어섰다. 천고밀림의 유구한 력사의 증견자인양 해묵은 이끼를 두텁게 쓰고 가로세로 누워있는 진대나무들, 그밑으로 곬을 따라 돌돌 흐르는 골개물들… 그 모습을 새들의 청아한 지저귐소리까지 곁들어 바라보느라니 우리에게는 불쑥 청산이 좋아 들어가는데 록수야 너는 왜 나오느냐며 아름다운 산천경개에 반하여 그 누군가가 읊었다는 옛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보면볼수록 어느 명화가도 다는 그려낼수 없을 절경이였다. 어디 가나 수백년자란 나무들이 꽉 들어차있었고 북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만병초를 비롯하여 아한대성식물로부터 아열대성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있었다.

하나의 대자연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오가산의 천연원시림, 우리는 대뜸 이 자연보호구에서 일하는 관리원들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마침 원시림구역을 벗어나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의 한 일군을 만나게 되였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원시림에는 천수백여종의 식물들과 표범, 곰, 메돼지, 산달을 비롯한 산짐승들과 새류, 량서류, 물고기류, 곤충류들이 많이 서식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동식물자원이 풍부한 이 원시림을 보호하기 위해 인원은 불과 수십명밖에 되지 않지만 수천정보나 되는 보호구의 주변에 넓은 산불막이선도 만들어놓고 살림집에서부터 오가산정점까지의 수십리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며 관리하고

오가산의 봄

있습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관심해오신 나라의 국보입니다.》

그의 흙발린 작업신이며 거칠어진 손을 번갈아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인적드문 산간오지에서 살면서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양묘장까지 꾸려놓고 해발높이별로 자라는 나무들을 수천그루나 심고 가꾸어가는 이곳 관리원들의 모습이 무척 돋보였다. 더우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새들도 넘기 저어하는 그 험준한 령에 오르시여 오가산의 푸른 숲을 바라보시며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97(2008)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조상잣나무며 오가산주목을 비롯한 천고밀림의 나무들을 보시며 이 산의 진가를 밝혀주시였다.

산이 좋고 숲이 무성하여 절로 명산이 되는것은 아니다. 나라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먼 옛날부터 해발 1 000m이상되는 산봉우리가 5개가 되여 오가산으로 불리운 이름없던 이 산이 나라의 국보로 빛을 뿌리게 된것이였다. 바로 나라의 자연보호, 환경보호사업을 중요한 애국사업의 하나로 여기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시였고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고계신다. 지난해 11월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장군님은 조국산천을 자신의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고,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진행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서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고 수도평양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워도 그 주변에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원림록화사업을 잘하도록 강조하군 하시였다. 최근년간에만도 그이께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하여 나라의 곳곳을 찾아 걸으신 길

보통강반의 새 모습

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바로 그이의 뜻을 받들고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만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섰다. 3년전 합장강정리공사를 단숨에 끝낸 기세드높이 보통강정리공사를 단 9일만에 성과적으로 끝냈던 인민군군인들은 지난해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물들을 수많이 건설하면서 록지조성과 식수사업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이 훌륭히 해놓았다.

조국인민들은 군인들의 일본새를 본받아 지난해 단 몇개월사이에 전국적으로 660여t의 종자를 채취하고 근 8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한데 이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자강도의 우시군에서는 왕가물이 든 조건에서도 이깔나무, 잣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종자들을 많이 채취하였고 평안남도 순천시에서는 이미 세운 축산과 나무모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기초하여 나무모생산에서 놀라운 실적을 이룩하였다. 한편 강원도 판교군에서는 림진강의 물오염과 장마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7 000여㎥의 강바닥돌을 운반하여 제방공사를 훌륭히 진행하였고 그 일대에 새 양묘장까지 꾸려놓았다. 물, 대기를 비롯한 나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연구사들의 열의 또한 대단하였다. …

이런 생각을 몰아가며 우리의 취재차는 천천히 령길을 달리였다. 어느덧 눈부신 해살이 우리의 눈가에 비쳐들었다. 오가산령마루에 올라선것이였다. 순간 아득히 펼쳐진 밀림의 바다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쏴-

바람에 설레이는 밀림의 그 장쾌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서는 조국의 어디서나 울리는 《조국찬가》의 노래가 절로 흘러나왔다.

…

구름우엔 참매 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
…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황해북도에서 많은 꿩을 산들에 놓아주고있다.

일 화

푸른 숲과 더불어

주체93(2004)년 3월 6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양묘장을 찾으시였다.

주변에서 나무심기에 여념이 없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산발을 뒤흔들었다.

그이께서는 야전복을 날리시며 양묘장을 둘러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양묘장을 잘 꾸리고 나무심기를 잘한다는 말은 이미 들었는데 실지 와보니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이 양묘장에서 키운 나무들로 주변야산들을 수림화한것을 보면 선군시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우리 군인들의 애국심에 대하여 느끼는바가 매우 클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돌이켜보면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일부 사람들은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수없이 산을 벗기였고 땔감이 떨어져 눈물을 머금고 나무에 도끼날을 박았다.

그리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이 줄어들었고 어떤 야산들은 벌거숭이로 되였다.

오죽했으면 장군님께서 벌거벗은 산들을 보시고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강》자만 남고 《산》자는 없는것이나 같다고 가슴아파하시였겠는가.

그이의 심중을 남먼저 헤아리고 나라의 수림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것은 인민군대였다. 인민군대가 창조한 나무심기와 산림애호본보기의 한 단면이 바로 그 부대의 양묘장에 펼쳐진것이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 부대의 양묘장에서 161만 5 000그루의 아카시아나무와 평양단풍나무, 뽀뿌라나무를 키워 병영구내와 주변산들에 심었으며 생울타리로 쓸 측백나무와 꽃관목도 가꾸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하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부대의 군인, 종업원, 가족들이 떨쳐나 나무를 심고있는 주변산들을 대견스레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나도 오늘은 부대에 왔던 기념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온 인민군지휘성원들도 부대군인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잣나무모를 골라잡으시고 정히 심기 시작하시였다.

한 일군이 얼른 다가가 자기가 심겠다고 하며 삽을 넘겨받으려 하자 그이께서는 아니라고, 나무는 자신께서 심겠다고 하시였다.

뿌리에 바람이 스며들세라 정성들여 나무를 심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눈굽이 달아올랐다.

그이께서는 나무를 심으면서 군대와 사회에서 나무심기를 잘하고있는 이 부대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전당, 전국, 전민이 …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조국애를 지니고 떨쳐나선다면 몇년안팎에 조국의 산과 들에 남아있는 〈고난의 행군〉흔적을 털어버리고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어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일군들의 가슴을 더더욱 뜨겁게 하였다.

조국의 푸른 숲과 더불어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 이 뜻깊은 이야기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고 그해 봄에만도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산과 들에 심었다.

*　　*　　*

조국의 산천을 더 푸르게

평양시 순안구역에 자리잡은 중앙양묘장은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나무모온실과 나무모포전들, 2개의 부속공장과 종합조종실을 비롯한 양묘장의 모든 시설들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있다.

백수십정보의 부지를 가진 양묘장에서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 170여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지난해에만도 천만그루이상 생산하여 전국각지에 보내주었다.

양묘장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국가선물관, 평양민속공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등 200여개의 단위에도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중앙양묘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온실과 야외재배장에서의 나무모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그 연구를 심화시켜 일반양묘장에 비하여 경지면적과 종자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은 10배, 사름률은 95%로 높이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로 부직포생산공장과 영양단지생산공장을 건설하여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다른 지역의 나무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질좋은 부식토생산을 앞세워 수많은 영양단지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으며 다른 단위들에까지 보내주고있다.

기사장 박동림은 말하였다.

《우리는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육종과 재배, 채종의 모든 공정들을 정보화하였습니다. 온실과 양묘장의 온습도감시 및 조종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지금과 같이 추위가 가셔지지 않은 조건에서도 양묘장에서 자래운 사철푸른 바늘잎나무들을 각지에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는 새 품종의 잔디에 대한 연구와 육종사업도 해나가고있습니다.》

산림조성사업,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사업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한 이곳 종업원들은 나무모생산을 전망성있게 내밀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의 재부인 산림을 가꾸는데서와 거리와 마을, 일터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서 자기들이 차지한 몫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들을 생산해내는데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현대적으로 꾸려진 온실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재배하고있다.

스트로브스소나무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

영양단지와 해가림발 생산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위해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욱 알뜰히 거두고 꾸리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평양시에서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평양시에서는 10월 한달동안에 880여동에 15만 9 000여㎡의 살림집들에 대한 외장재바르기와 40여㎞의 연석보수, 50여㎞의 경계석보수를 진행하였으며 6만여㎡의 걸음길들에 보도블로크를 새로 깔았다.

그리고 살림집지붕보수, 도로보수, 잔디밭조성과 비배관리 등 거리의 면모를 깨끗이 하고 도로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뿐만아니라 서포지구를 일신하기 위하여 서평양역에서부터 서포청년역까지의 도로구간에서 걸음길블로크깔기와 경계석설치, 자전거길포장, 옹벽보수 및 장식이 힘있게 진척되고 수종이 좋은 수천그루의 나무심기와 수천㎡의 면적에 대한 잔디보식 및 심기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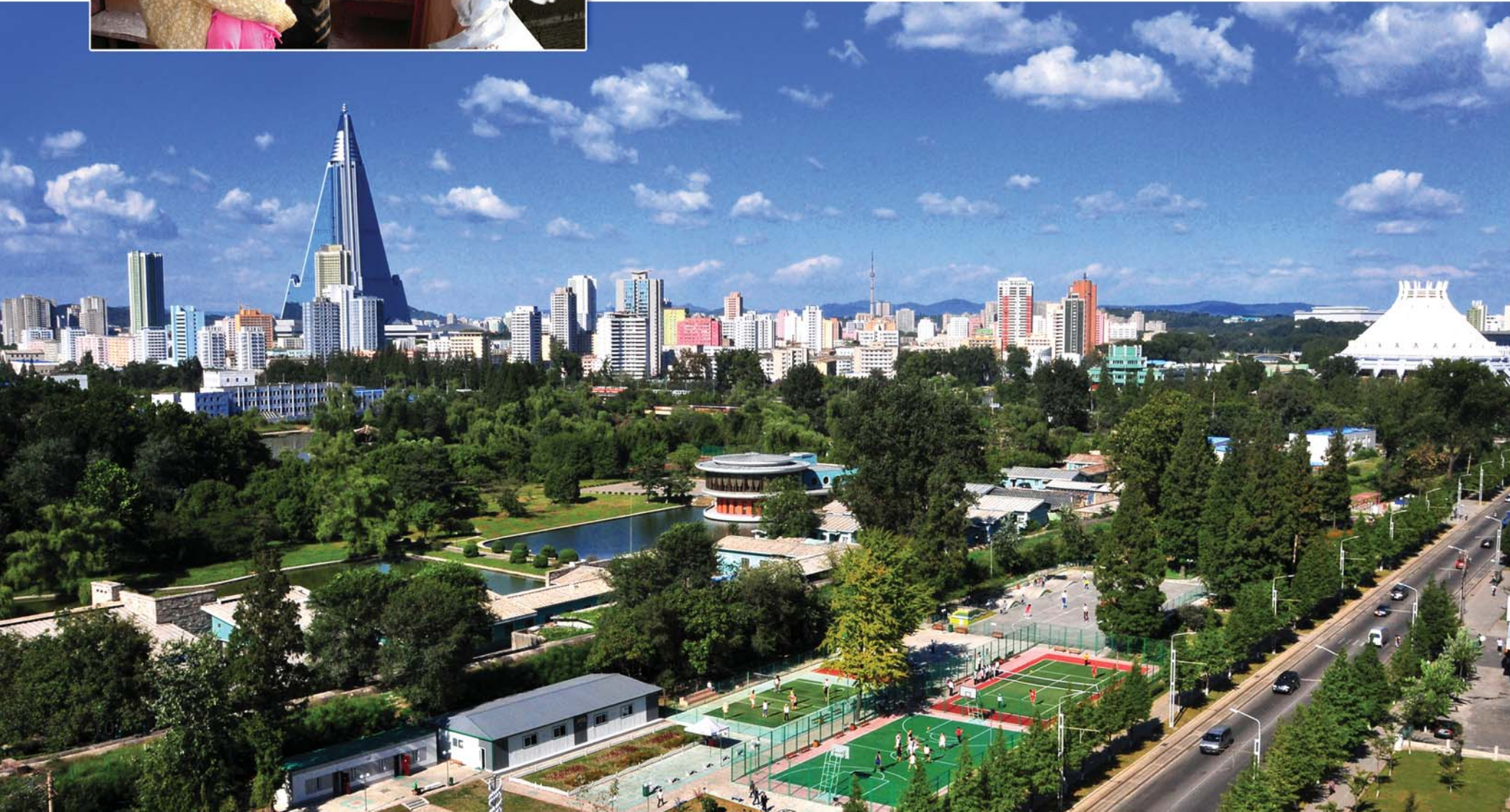
올해에 들어와 이 사업이 더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있다.

부침땅을 제외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거나 풀판을 조성하며 꽃과 지피식물을 심어 빈땅이 드러난 곳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를 위해 중앙양묘장과 각 구역원림사업소마다에 꾸려진 양묘장들에서는 스트로브스소나무와 창성이깔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제때에 심을수 있게 보장해주고있다.

지난해 유원지주변에 4 000여그루의 나무를 심은 릉라인민유원지관리소의 일군들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애국의 마

평양시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해 떨쳐나선 수도시민들에 의해 평양은 나날이 젊어지고있다.

단상

봄물이 오르는 대동강반에서

어디 가나 봄기운이 짙어간다. 겨우내 엄동장군의 단련으로 얼어붙었던 평양의 대동강우에는 벌써 철을 따르는 오리들이 물면을 헤가른다.

얼마전 일요일 대동강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한곳에 눈길이 끌리였다. 배를 타고 대동강의 수질상태를 분석해가는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의 물환경연구실 연구사들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수십년세월 나라의 크고작은 강들과 바다들을 쉬임없이 오가며 수질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대책해왔다. 그리고 물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공장, 기업소들과 오염된 강하천들에서 그 정화를 위한 기술을 부단히 연구,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이 걸은 길, 남모르는 수고는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올해에는 남들보다 먼저 봄을 맞으며 대동강에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쏟고있다.

둘러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을 좋아한다. 맑은 물, 맑은 공기… 그 청신한 세계를 마련하기 위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나라의 물, 대기, 토양 등의 환경보호사업에 공민적량심을 바쳐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조국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를 그렇듯 아름답게 갖추어가는것이 아니랴.

해빛에 반짝이는 대동강의 파아란 물결은 연구사들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자연의 봄물처럼 깨끗해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형형색색의 당들이 수많이 존재하고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당으로, 어머니당으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그러한 당은 일찌기 없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는 그 어떤 강요나 회유기만에 의하여서는 절대로 생길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이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가장 정확히 실현해주고 그들의 운명을 진정으로 지켜주고 보살펴줄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는 어머니당인것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의사와 요구, 민심이 집대성되여있으며 당의 모든 투쟁과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문제,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 선 후대관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새롭게 제시되고 줄기차게 관철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에는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적으로 실현하려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신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그러기에 조선로동당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철저히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도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있다.

당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할뿐아니라 그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고있다.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며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이 다름아닌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이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창전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연풍과학자휴양소, 마식령스키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산기지, 축산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이 일떠서는것도 모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로동당이 베풀고있는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하기에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이 조선로동당을 신뢰하고 흠모하는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으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심청룡

음이 자란다는것을 명심하고 많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있다.

서성구역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잔디밭조성과 관리도 잘하고있다.

중구역, 평천구역, 대동강구역들에서는 땅이 녹기 시작하는데 맞게 잔디가 여러가지 병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으며 새로운 잔디밭을 조성하거나 잔디밭에 복토를 해주는 사업도 짜고들어 밀고나가고있다.

평천구역 해운1동에서 살고있는 김봉옥은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리는 사업은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애국은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아끼고 사랑하는데서부터 움터난다.》고 말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잔디밭관리에 열성을 내고있다.

평양시안의 공원, 유원지들도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고있다.

평양민속공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만경대유희장 등 수도의 곳곳에 꾸려진 공원, 유원지들에 꽃관목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사업과 함께 외장재바르기와 걸음길들의 보도블로크깔기 등 보다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강하천정리를 위한 사업도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평양시 강남군, 강동군, 룡성구역의 일군들은 대동강, 남강, 합장강의 강바닥파기에 제방쌓기를 따라세우고있다.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되여가고 깨끗한 환경이 보장되는 평양에 희귀한 새들을 비롯한 온갖 새들도 날아들고있다.

아직 꽃향기는 풍기지 않아도 평양의 모습은 나날이 더 아름다와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왕청문의 교훈

(전호에서 계속)

그만큼 말했으면 좀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고한 대결자세를 취하면서 그날밤 왕청문에 주둔하고있는 독립군무력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우리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리였다.

나는 류혈을 막기 위하여 차광수를 급히 삼원포로 돌려보냈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류하현의 우리 동무들한테까지 손을 뻗칠수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도 그밤으로 왕청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국민부가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해놓고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있으니 대회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테로행위에 대해서는 성토문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만천하에 고발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남만청총대회는 류산되고말았다.

나도 왕청문에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동무들은 최창걸이 활동하고있는 류하현 삼원포에 가서 성토문을 작성하여 만주각지에 보내고 우리끼리 대회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세력이 강한 삼원포에 간다는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나는 삼원포에 갈가, 릉가라는 곳으로 갈가 하고 망설이던 끝에 릉가에 가서 차후의 활동방향을 결정짓기로 하였다. 릉가에서 숨을 좀 돌리고 길림에 들렸다가 거기도 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송으로 가서 국민부의 테로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강홍락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자다가는 잡힐것 같습니다. 릉가에 가겠으니 로자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강홍락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쉬며 걱정하였다.

《자네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뛰겠는가?》

《큰길로 냅다 뛰여서 80리만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릉가에 가면 문광중학교출신의 조직원이 있으니 얼마동안은 견디여낼수 있다고 말했더니 강홍락부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듯 도중식사와 판대기엿 몇개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문광중학교출신의 조직원이란 신영근을 말한다. 신영근은 릉가의 한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있었다.

나는 이튿날 점심때가 다되여서야 릉가에 도착하였다.

한흥학교 고등과의 녀학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를 다했다.

강동에서 반제청년동맹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한흥학교에 온 신영근의 애인 안신영이 동무들과 함께 록두묵과 시원한 랭국을 만들어 푸짐하게 점심상을 차려주었다.

그 점심밥을 얼마나 달게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나는 식사를 한 다음 피곤을 무릅쓰고 한흥학교의 운영정형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였다. 밤새 80리를 걸어오느라고 녹초가 되였던것이다. 그날 신영근은 내 잠을 깨울가봐 상학종도 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뛰여노는 학생들을 한아이한아이 손짓으로 불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

나는 릉가에 머물러있을 때 국민부사람들이 체포한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끝끝내 처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자들은 최봉, 리태희, 지운산, 리몽렬, 리광선, 조희연 등 스물한두살밖에 안되는 6명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왕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학살하였다.

최봉을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로력자대중의 립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다.》는 말로 국민부의 죄행을 절규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혁명승리 만세!》를 웨치였다.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그후 학살당한 6명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붙잡아다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고이허는 나에게 자기들의 살인흉계를 알려준 오신애까지 끌어내다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는 릉가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국민부지도부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을 썼다. 그 성토문을 최창걸이 활동하고있는 삼원포에서 등사하여 발표하게 하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도 보내여 성토대회를 열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대중의 전위투사들을 공산청년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민부란 반혁명분자 몇 개인의 영리장이며 살인음모소이며 중국의 로동자, 농민을 학살한 장개석의 졸도와 다름없는 역적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성토문을 낸 후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부사이에는 정면대립이 조성되였다.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우리 계렬의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토벌》하였다. 그자들의 손에 그때 끌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의 가슴에 국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히였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며칠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나라를 찾아보자고 혁명의 길에 뛰여들었는데 같은 민족한테 피해를 당하는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우리는 《ㅌ.ㄷ》를 결성한 첫날부터 항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해왔다. 안창호의 사상이 개량주의적이라는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붙잡혔을 때에는 주저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3부통합회의가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력량의 단합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 성의를 외면하고 야수적인 살륙으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그때 릉가에서 《조선사람은 비록 세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하던 차천리로인의 말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독립운동자들가운데도 단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대중은 모든 애국자들이 다 주의나 단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반일항쟁에 떨쳐나설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였다.

지금도 왕청문의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아나군 한다. 나는 그 비극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민족내부에서 그처럼 참혹하고 무의미한 살륙이 더는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군 한다. 고이허나 현묵관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생각할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인정적으로 그처럼 가까우면서도 리념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묵관은 그후 장사에서 테로분자들에게 살해되였다. 결국 그자신도 테로의 희생물이 된것이다.

그의 딸 현숙자가 해방후 상해림시정부인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력사연구소에 보관되여있을것이다.

그가 낳은 자식들은 분렬된 조국의 북쪽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렬되여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단합이 첫째가는 생명이라는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군 한다.

(끝)

들끓는 탄전

붕-

석탄을 만재한 화차들이 꼬리를 물고 직동역구내를 벗어나고있다.

탄전이 끓어야 화력발전소들이 끓는다며 직동의 탄부들이 캐낸 석탄이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실려가고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흐뭇해졌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 8직동청년탄광 11갱 갱장 김창선은 석탄생산은 곧 전기문제를 푸는 기본열쇠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받들어 올해에도 월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9갱 기사장 박용철은 말하였다.

《생산장성의 기본열쇠는 생산자대중인 탄부들의 높은 열의와 함께 기술혁신에 달려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욕망이 커도 과학기술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더 많은 탄을 캐낼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9갱과 11갱을 비롯한 여러 갱에서는 앞선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채탄실수률을 1. 2배로 높이였고 교대당 계획보다 더 많은 작업굴진을 하여 예비탄발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탄부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도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집단적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동밑에 설비들의 가동상태와 실적 및 안전상태들에 대한 감시체계, 종합조종실에서 매 작업구간들과의 화상회의체계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탄광의 정보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가니 석탄산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다.

벨트콘베아에 실려 련속 갱밖으로 나가는 석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9갱 홍순광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부하, 만가동으로 들끓는 탄광을 보면 주체98(2009)년 8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우리 탄광을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눈앞에 어려옵니다. 언제나 우리 직동의 탄부들을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던 장군님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는 더 많은 석탄생산으로 보답할것입니다.》

직동은 오늘도 더 많은 석탄생산을 위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정이 가는 공장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들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기사장이 먼저 우리를 종합조종실로 이끌었다. 종합조종실에 들어서니 공장의 생산실태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공장현대화의 첫공정으로 종합조종실의 정보화를 완전히 우리 식으로 실현하는것을 기본과제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여기 종합조종실에서는 공장관리지원체계와 동력관리지원체계, 일정계획작성지원체계 등은 물론 직장별생산량과 실적, 원료투입과 공정특성값을 실시간 장악분석하여 생산지휘일군들의 결심채택에 도움을 주어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고있습니다.》

식료품생산의 첫공정인 포장재직장에서 3겹공압출박막생산기와 8색인쇄기가 여러가지 용도의 포장재들을 생산하고있는 모습을 돌아보고난 우리는 종합가공직장에 들어섰다.

종합가공직장의 고기가공작업반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제작한 고기정량주입기를 통하여 고기를 자동적으로 주입하여 통졸임을 생산하고있었다.

그전에는 사람의 손으로만 할수 있다던 통졸임의 고기주입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에서는 이 생산공정에서 사람의 손로동을 완전히 없앴던것이다.

당화직장과 기초식품직장, 맛내기직장과 기름직장들에서도 제품생산의 준비공정인 원료주입으로부터 시작하여 발효, 정제,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사람의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무인화, 무진화를 실현하였다.

당화직장 직장장 정남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식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니 좋은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산실적은 물론 제품의 질도 그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생산되는 물엿은 자연꿀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봄, 여름철에는 많은 꿀벌들이 출하장에 날아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이 고장의 벌들이 물엿향기에 우리 공장으로 다 날아오는것 같습니다.》

그는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연구사들과의 협동밑에 효소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 결과 이런 질좋은 물엿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전자도서실과 과학기술보급소에도 들려보았다. 거기서는 하루일을 마친 공장로동계급이 현대화이자 곧 생산실적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새 지식을 습득하고있었다.

기초식품직장 직장장 림종실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할수 없습니다. 제 비록 나이가 많지만 매일저녁 전자도서실과 과학기술보급소에서 많은것을 배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보면볼수록 정이 가는 공장이였다. 넓고 시원한 공장구내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아름드리 수삼나무들도 마치 우리를 반기는것만 같았다.

우리의 취재는 끝났으나 쉬이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동화세계의 주인공들

지난해 11월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새로 일떠선 평양육아원, 애육원에 원아들이 새 보금자리를 폈다.

올해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평양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의 생활을 알고싶어 우리는 그곳을 찾았다.

여기엔 다 있다

밖에는 아직도 겨울이라 찬바람이 불어도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내부는 따뜻한 봄날씨였다.

현관홀로부터 시작하여 층계와 벽들에 새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생동한 그림들은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였다.

원아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교양실들에는 해빛찬란한 대기욕실, 세면장, 잠방이 잇달려있었다.

실내놀이실, 지능놀이실, 운동실들에는 장난감들과 재미나는 그림책들, 유희오락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편으로 꾸려진 자연관찰실에는 계절에 맞는 짐승들의 박제품이 놓여있었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실내 및 야외물놀이장은 모래터와 배구장, 물대포와 물미끄럼대, 사과굴 등이 꾸려져 원아들은 《문수물놀이장》이라고 말하고있다.

내과, 외과, 구강과를 비롯한 전문의료과들과 아담한 입원실까지 갖춘 치료병동의 치료설비들에는 동물모양을 한 설비들도 있어 치료받는 아이들에게서 아픔보다도 흥미와 웃음을 더 자아내게 하고있다.

원아들이 보육원들과 교양원들의 손을 잡고 멋진 로라스케트를 타고 우쭐해서 지쳐가는 로라스케트장도 있었다.

하기에 지난해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품에 안아주셨던 평양육아원의 김강성, 김성철어린이들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로라스케트장이 있는 우리 집은 세상에서 제일 커요.》라고 말하였다.

원아들의 저녁일과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시간은 아이들이 엄마품에 찾아드는 때이다. 학교에 갔던 아이들도, 마당에서 뛰여놀다 지친 아이들도 정든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시각에 원아들의 일과도 집에서와 같이 흘러가고있다.

저녁이면 애육원에서는 교양원들이 과외교양원들에게 원아들을 넘겨주어 저녁일과생활을 하도록 하고있다. 과외교양원들가운데는 처녀들도 있지만 그들은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의 사랑을 쏟아붓고있다.

그들은 원아들이 손과 발, 얼굴을 깨끗이 씻게 하며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고있다. 취사원어머니들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는 다음날 식사준비에 여념이 없고 세탁공어머니들은 깨끗하게 손질한 갈음옷을 원아들에게 입혀주고있다.

육아원의 보육원들이 젖먹이들을 정다운 자장가로 잠재울 때 애육원원아들은 곰인형을 안고 놀기도 하고 동화그림책과 만화영화도 보고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 영글어가도 초롱같이 눈을 빛내이며 선생님에게 《옛말 또 해주세요.》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원아들도 있고 졸음기가 대롱대롱 매달린 눈을 깜박이다가 《선생님, 자겠습니다.》하고는 어른스레 자기 침대로 향하는 원아들도 있다.

텔레비죤앞에 지그시 틀고앉아 만화영화를 보다가 저도모르게 곯아떨어진 원아들을 선생님들이 따뜻이 안아 침대에 눕히고있다.

어느덧 잠방의 불들이 다 꺼지고 방안에는 오직 쌔근쌔근 고운 숨소리뿐, 어머니 손길마냥 따사로운 품에 안겨 행복동이들은 단꿈을 꾸고있다.

원아들의 궁전-사랑의 집에서 아이들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있다. 이 아이들에게 어찌 부모가 없다고 하랴.

하기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원장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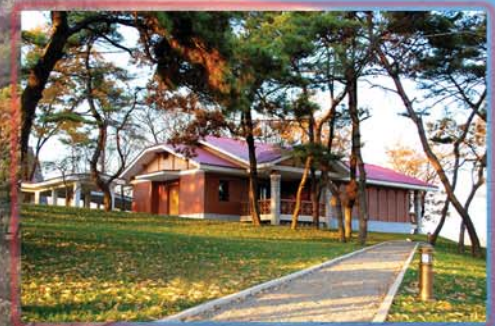
《우리 원아들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휴양소호동

휴식터

연회장

첫 휴양생들

방문기

연풍호기슭에 꽃펴나는 휴양생활

-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아서 -

우리는 얼마전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았다.

《연풍과학자휴양소》라고 씌여진 문주를 지나 구내에 들어서니 휴양소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휴양소의 경치가 한눈에 안겨오고 연풍호의 자태가 아름답게 비껴왔다. 이보다 더 좋은 경치가 또 어데 있으랴 하는 생각에 마음부터 먼저 흥분되는것을 누를길 없었다.

우리의 얼굴에서 그 무엇을 읽었는지 휴양소소장 리영옥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휴양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또 하나의 은정깊은 선물입니다.

그이께서는 휴양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현지까지 밟아보시며 경치아름다운 연풍호기슭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건설중에도 여러차례 찾으시여 휴양소를 세계적수준에서 꾸리도록 해주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에 수십명을 수용할수 있는 휴양소는 종합봉사소건물을 중심으로 9개 호동과 기타 건물로 이루어져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과학자부부들이 들었는 5호동으로 향하였다. 건물의 외벽타일과 지붕재색갈이 주변경치와 잘 어울린 휴양각은 겉모습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호동에 도착하니 그곳에서는 윷놀이경기가 한창이였다. 경기에서 지지 않으려는 부부들사이의 승벽심이 더더욱 웃음꽃을 피워놓게 하였다. 경기가 끝나자 우리는 생물공학분원 연구사들인 리기성, 리선옥부부와 함께 침대

당구장에서

강타!

부부과학자휴양생

오락홀

와 이불, 옷장 등 모든 조건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그들의 호실을 돌아보았다.

밖으로 나오니 호동들로 뻗어나간 수백m의 외랑, 그 구간과 구내도로에 깔아놓은 청석이 특색있게 안겨왔다. 과학자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휴양각들이 외랑으로 련결되고 이처럼 청석까지 깔아놓은 휴양소는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소장은 말하였다.

맑고 푸른 연풍호와 울창한 수림의 자연미를 한껏 맛보며 기슭으로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젊은 련인들처럼 다정하게 산보하는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한철훈과 환경공학연구소 김혜림부부도 만났다. 경치좋고 공기좋은 이곳에서 청춘시절처럼 산보를 실컷 한다고, 그러느라니 10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고 말하며 그들은 행복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연풍호기슭에서는 낚시질이 한창이였다. 맑은 물 출렁이는 기슭은 낚시질에 남다른 취미를 가진 휴양생들의 고정된 령역이라고 한다. 탐구로 분망한 속에서도 언제 낚시질을 익혔는지 연해연방 붕어며 잉어를 낚아올리는 그 솜씨가 한다 하는 전문낚시군들 못지 않았다. 이렇게 낚시질을 하다보면 쌓였던 피로가 씻은듯 사라지고 또 연구과제의 실마리도 풀리는것 같다는 석탄과학분원 연구사 량형찬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또 잡았다-》

우리는 낚시코에 걸린 물고기를 쥐고 흐뭇해하는 그의 모습을 남겨두고 종합봉사소건물에 들어섰다.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리는 건물안은 그야말로 희한하였다. 1층의 연회장이며 식사실, 목욕실,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하여 2층의 당구장 등은 휴양생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높은 수준에서 꾸려져있었다.

탐구를 즐기는 과학자들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진 전자도서실이며 연구과정에 거둔 성과와 경험을 나누는 협의실도 흥미있었다.

실내물놀이장은 휴양생들이 즐겨찾는 곳이라고 한다. 맑고 깨끗한 물에 몸을 푹 잠그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휴양생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물에 뛰여들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기계공학연구소 실장 김광호는 여기 휴양소의 물놀이장이 평양의 문수물놀이장 못지 않다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어딜 가나 유쾌한 웃음속에, 노래속에 묻혀있는 휴양생들을 취재하는 우리도 휴양생이 된듯 한 즐거운 심정이였다.

건물안에서는 당구와 탁구경기가 승패를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밖의 다용도운동장에서는 1, 2, 3, 4호동 대 6, 7, 8, 9호동사이의 배구경기가 떠들썩한 응원속에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었다. 연구소와 연구종자는 서로 달라도 마음을 합쳐가며 점수를 올리는 량팀선수들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정말이지 휴양소안팎을 돌아보느라니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그야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사랑의 금방석이라는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덧 밤은 깊었지만 휴양각들의 창문가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우리는 휴양소에 꽃펴나는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뒤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물놀이장

장훈이야!

낚시질

방문기

교육자가정에 넘치는 기쁨

우리는 얼마전 대동강반에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찾았다.

하늘을 찌를듯 아찔하게 솟구친 초고층살림집들의 독특한 모양은 마치도 팽팽하게 부푼 돛을 련상케 하였다.

외형부터가 특색있게 건설된 살림집의 내부는 어떠할가. 이런 생각을 앞세우며 승강기를 탄 우리는 1현관 16층 4호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광업공학부 학부장인 세대주 한현일이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알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요일이여선지 마침 온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새집에서 사는 기쁨이 크겠다는 우리에게 한현일은 이사한지 여러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훌륭한 집이 과연 우리 집이 맞긴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살림방들을 돌아보았다. 널직한 살림집에는 공동살림방, 부모방, 자식방, 부부방, 서재가 있고 매방들에는 침대, 옷장, 책장, 책상, 의자 등 살림살이와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비품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었다.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집에 입사하던 날 온 가족이 너무 감격하여 한동안 말을 다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생활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살림집에서 사는 주부인 안영애의 감정은 류달랐다.

《입사하는 날 부엌창고문을 여는 순간 가스가 가득찬 가스통이 들어있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엌을 리용하는 주부들이 불편이 없도록 갖추어진 가시대와 조리대, 배풍기도 훌륭하였지만 불만 달면 음식을 할수 있게 가스가 가득찬 가스통까지 있을줄은 몰랐다고, 주부들의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헤아려 줄줄은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상싶었다.

살림집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며 감탄의 목소리를 연방 터치던 우리는 집주인들과 마주앉았다.

알고보니 한현일의 안해 안영애도 교육자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부교장인 그는 28년간을 교단에서 일하고있었다.

《요즘 우리 가정에는 기쁜 일만 생기고있습니다. 희한한 새집을 받았지, 남편의 제자들이 일군으로 성장하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는 소식이 매일이다싶이 날아들지 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과 딸이 학습뿐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도 모범이라고 학급에서 칭찬이 자자하지…》

《그뿐이 아닙니다. 모범교수자인 안해의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옛 스승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육자가정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부부가 교육자들인것으로 하여 가정의 기쁨과 자랑은 남달랐다.

《그럴 때면 우리를 교육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뜨겁게 젖어듭니다.》

대학의 넓은 교정에 들어서며 과학으로 조국을 빛내일 결심에 불탔던 한현일이였다.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의 길을 걸으면서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고마운 손길을 걸음걸음 느끼며 보답의 마음만 커가던 그였다.

하기에 그는 많은 인재들을 키워 조국앞에 내세웠으며 무산과 은률, 재령 등 대규모광산들에 나가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보답의 걸음보다 그에게 영광의 자리들이 먼저 차례지고 사랑의 증서들이 나날이 늘어만 갔다.

새집들이하는 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30대에는 박사, 40대에는 부교수, 학부장으로 된 그였다.

성장해온 나날을 뜨거운 감회속에 돌이켜보며 한현일은 격정으로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를 안영애가 대신하였다.

서재에서

《조선의 과학자, 교육자들처럼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는 과학자, 교육자들은 없습니다.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교육과학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는 조국의 품이야말로 지식인들의 진정한 어머니품입니다.》

보금자리에 넘치는 교육자가정의 기쁨과 행복, 그야말로 교육자들을 내세워주는 조국의 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앞으로 기쁨많고 긍지높은 이 가정에 넘쳐날 행복의 웃음소리를 그려보며 우리는 그의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변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보답의 마음을 안고 교육사업에 전심하는 한현일

우뚝, 조국을 들어올리다

김광민

지난해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 《월계관》은 조선팀이 쟁취하였다.

지난 제15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또다시 우승한 팀의 성과는 녀자축구강팀으로서 조선팀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당시 우승의 시상대에 올라 장중하게 울리는 《애국가》의 선률속에 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녀자축구선수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샘솟았다.

그들을 이끈 김광민책임감독역시 그러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인민체육인인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

김광민이 국가녀자종합팀 책임감독을 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였다. 명석한 두뇌와 완강한 실천력, 풍부한 선수생활경험을 가진 그에게 있어서 목표는 우선 팀을 아시아의 강팀으로 만드는것이였다. 실지 그는 두차례에 걸쳐 아시아패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헐한것이 아니였다.

주체101(2012)년을 마감하는 광민에게는 하나의 시련이 닥쳐왔다. 팀이 세대교체라는 어쩔수 없는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였던것이다. 문제는 신진선수들을 이끌고 다음해에는 동아시아컵 녀자축구경기대회, 그 다음해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녀자축구경기를 치르어야 하였다.

동아시아컵 녀자축구경기대회 준비기간은 여덟달남짓하였다. 아시아강팀들이 참가하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앞으로 있게 될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할수 있었다. 김광민은 분발하였다. 그는 선수들에 대한 지도에서 기본알맹이인 종자를 바로쥐고 선수들의 사상, 육체, 기술, 전술적준비상태를 정확히 투시해본 기초우에서 훈련계획을 내놓았다. 선수들의 사상적각오를 높여주고 체력을 증진하며 매 위치별에 따라 선수배치를 진행하고 서로의 결합전술을 완성하는 등의 새로운 전술적방안은 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평양태생인 광민은 재능있는 륙상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와 인연을 맺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지만 몸이 다부지고 속도가 빠른 그는 대동강구역 청소년체육학교 축구소조에서 소조원으로 그리고 4. 25체육단 축구팀에서 선수로, 후에는 감독으로 활약하였다.

그 나날에 언제나 팀의 우승, 이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을 끓여온 그였다.

종자를 어떤것을 쥤는가에 따라 수확이 결정되듯이 광민의 실력과 노력은 마침내 팀을 동아시아컵 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기를 총화해볼수록 팀의 약점들이 경기과정에 미치여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분석을 하게 되였다.

그것은 일본팀과의 경기에서 나타난 0:0이라는 무승부였다. 당시 일본팀은 월드컵보유팀일뿐아니라 올림픽경기에서 2등을 한 강팀이였다. 상대를 이기자면 대응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낮에는 낮대로 훈련지도에 열중했고 밤에는 밤대로 전술안을 연구하였다. 힘이 들었다. 쓰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조국의 명예를 두어깨에 걸머지고 있다는 자각에 다시금 용기를 내여 일어서군 하였다.

훈련지도를 하는 김광민

그러던 그는 선수들과 함께 크나큰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을 만나시여 경기성과를 고무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것이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가기 전에는 친히 검열경기를 보아주시며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은 광민과 선수들의 가슴마다에 기어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우승하여 그이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맹세로 불타게 하였다.

광민은 일본팀을 비롯한 강팀들을 이길수 있는 자기 식의 대응책을 찾아쥐고 그것을 훈련에 구현해나갔다. 책임감독과 선수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뛰고 또 뛰였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내놓은 전술안들은 경기시작부터 커다란 은을 나타내며 맞다드는 팀들을 보기좋게 물리치게 하였다. 특히 무시할수 없는 중국과 남조선팀을 물리치는데서 광민의 의도와 지략은 그대로 들어맞아 그 팀들은 패배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광민의 수완은 결승경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아시아의 강팀이라고 하는 일본팀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통쾌하게 타승하였던것이다. 광민은 선수들과 함께 자기 령도자에게 다진 맹세를 실천했다. 조국의 명예를 아시아의 최강의 높이에 우뚝 들어올린 광민은 지금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그의 두번째 목표는 자기 팀이 세계적인 강팀이 되는것이다.

오늘도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그는 사색과 실천으로 날과 달들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담보는 인민의 힘이였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해방만세의 환호성이 삼천리강산에 울려퍼졌다.

그날은 조선이 다시 소생한 날이였으며 조선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게 된 뜻깊은 날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70년의 돌기를 새기며 흘렀다.

돌이켜보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내였으며 또 피어린 사선의 언덕은 그 얼마나 넘었던가.

의병과 독립군의 화승대소리, 3. 1의 함성과 6. 10만세소리가 삼천리강토에 울렸지만 그때마다 투쟁은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고 인민대중은 무참한 희생만 내였다.

그러했던 민족에게 재생의 빛을 안겨주신 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시였다.

하다면 무엇이 그이로 하여금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세계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기적을 창조하실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이민위천이였다. 즉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수백만군중이 나라를 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으로 일떠섰던 주체8(1919)년의 3. 1인민봉기는 그이께 인민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으며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알게 해주고 어리신 그이를 인민의 대오속에 처음으로 세워준 잊지 못할 투쟁이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은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으로 인민들속에 들어가신 그이이시였다.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과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밖에 없었지만 단호히 아시아의 맹주로 뽐내던 일제와의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대전도 인민을 믿고 전민이 다 참가하는 유격전으로 벌릴것을 구상하시고 항일무장대오도 반일인민유격대(후에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로 조직하시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이의 결심에 의문을 표시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여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하신 그날의 교시는 후날 간고한 무장투쟁속에서 실천으로 증명되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국가적후방이고 정규군이였으며 백전백승의 힘의 원천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이 다 인민의 아들딸들이였으며 인민들은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원호하였다.

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수령님께 한 사람이 백전백승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를 두고 **김일성**장군님께서 천기를 내다보시기때문에 이긴다는것이 정말인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이께서는 내가 천기를 내다보는것이 아니라 인민이 제갈량이라고, 인민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도와주기때문에 매번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만원정의 나날 촉한을 만나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사랑하는 인민, 그이의 유일한 힘이며 지지자인 그 인민을 위해 《반일전가》를 지어부르시며 사선의 고비, 눈보라만리길을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실수 있었다.

진정 그이의 힘의 원천은 인민이였으며 인민의 힘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승리의 담보였다.

세기의 상상봉에 인민을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업적은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윤영일

력사인물

실학자 김정희

김정희(1786년-1856년)는 19세기 전반기의 명필이며 실학자이다.

충청남도 례산에서 호조판서를 지낸적이 있는 이름있는 유학자의 아들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커가면서 실학자인 박제가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는 24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그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성균관 대사성,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는 유학자로서 일생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후대들을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김정희는 우리 나라의 금석학을 력사과학의 한 분야로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서울 북한산 비봉의 비를 답사하여 그것이 진흥왕순수비임을 고증하였고 함경남도 영광군 황초령에서도 진흥왕순수비를 발견하였다. 그가 쓴 《금석과안록》은 이 두 비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은것인데 삼국시기 력사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밖에 전국에 널려있는 금석문자료들을 널리 조사연구하여 《해동금석목록》을 편찬하였다.

이리하여 김정희는 우리 나라에서 금석학을 력사학의 한 구성부분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학자로 되였다.

그는 우리 나라 력사뿐아니라 천문, 력학, 지리학, 음악 등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매우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정희는 조선서예(붓글씨)에서도 재능있는 대가의 한 사람으로서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를 창안하여 김생, 한석봉과 함께 3대명필로 꼽히웠다. 그의 글씨는 당시 조선사람들뿐아니라 중국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는 또한 시도 잘 지었고 먹그림도 잘 그렸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를 《시서화 3절》(시, 글씨, 그림 세가지가 다 최고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일러왔다. 그가 쓴 많은 글들은 자신이 불태워버렸기때문에 얼마 없으나 현재 《완당선생집》, 《담연재시고초》 등이 전해지고있다.

*　　*　　*

녀인의 하루일과

-가정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얼마전 우리는 문득 생각키우는 이런 물음을 안고 한 녀인을 만나보았다. 그는 가정주부이면서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평양제4소학교 교장인 길금순이다.

길금순

우리의 이야기는 그를 만난 날의 아침부터 시작된다. 그날은 학교에서 그가 세운 주사업계획에 따라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였다.

해야 할 일감이 많은 날이여서 그런지 그의 움직임은 이른아침부터 민첩하였다. 밥을 짓고, 조선4. 26만화영화촬영소 부원인 남편(박동철)의 출근준비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 아들(박성훈)의 등교준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아침시간을 보낸 그의 일과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분주하였다.

이미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5분정도 걸리는 출근길에서 그날 일정을 꼼꼼히 따져본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업에 착수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그는 전날밤에 출판물들에서 학생교양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취한것을 교원들이 수업시간에 리용할수 있도록 학교의 콤퓨터구내망에 입력시키였다.

이어 3학년 1반 학생들에 대한 정보기술과목수업을 참관하였다. 그의 태도는 무척 진지하였다. 마치 그자신도 학생이 된듯 수업제목을 책에 써놓고 교원의 설명을 받아쓰기도 하고 학생들과 꼭같이 콤퓨터에서 조작을 해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4개 학급의 여러가지 수업을 참관한 그는 오후에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있다.

조직한 분과별교원모임과 경험토론들에서 평가를 내리였다. 정보기술과목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콤퓨터활용기초기술을 기본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능력 등을 동시에 계발시켜줄수 있도록 교원이 문제점설정부터 잘할데 대한 문제, 자연과목수업에서는 조국의 식물에 대한 상식을 생동한 직관물을 곁들어 잘 알려주는것과 함께 애국심을 자래워 학교와 거리, 마을에 심은 꽃과 나무들을 사랑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공부하신 뜻깊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교원들이 깨우쳐주는 교수와 교양에 품을 들일데 대한 문제…

구석구석 총화짓는 그의 평가에는 자그마한 빈틈도 없었다.

어느 사이 하루사업이 끝났지만 그는 마치 시간이 자기에게만은 적게 차례지기라도 하는듯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어스름이 깃든 거리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인민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서 며칠전 료해한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에서 사는 한 가정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였다.

이른아침부터 밤늦도록 바삐 지내는 길금순, 그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 평범한 녀성들을 아껴주고 모성영웅으로, 일군으로, 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는데 우리 녀인들이 응당 가정의 밑거름이 되고 사회의 역군이 되여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지만 보람은 큽니다.》

그날 우리는 그의 하루일과를 통하여 교단에서 흘러온 그의 30년을 돌이켜보았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철없는 소학교학생들을 수많이 가르치며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적으로 인민군대원호사업도 힘있게 벌려온 그였다.

그를 보며 우리는 이런 답을 내리였다.

누구나 가정과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감을 찾아할 때 그만큼 가정의 생활은 꽃이 피고 사회는 보다 빨리 발전할것이다. 그를 위해 조국의 수많은 녀인들이 누가 알아주건말건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 큰 몫을 말아안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애쓰고 또 노력하는것이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일

상식

옥루기륜

옥루기륜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38년 1월에 완공된 흠경각안에 설치된 자동물시계로써 장영실과 리천이 제작하였다.

옥루기륜은 물의 힘으로 종, 북, 징을 치는 장치는 같았으나 그전에 만든 자격루에 비하여 12개의 인형이 각각 자기가 맡은 시간동안 패쪽을 들고 서있다가 자기 시간이 지나면 여닫는 문을 열고 밑으로 내려가 숨어버리는 장치가 더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당콩알만 한 크기의 금덩어리가 실제적인 태양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있었고 그 모든 장치들이 높이 7자(약 140㎝)나 되는 종이로 만든 《산》으로 덮여있었다.

흠경각의 물시계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해돋이의 위치와 운동속도를 정확히 표시하고있다는 점은 천문관측기구의 역할도 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태양》, 인형 및 그밖의 모든 가장물들이 하나의 수차운동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수많은 치차를 가지고있는것은 물시계로부터 오늘날의 기계시계에로 전환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도 볼수 있다.

특히 옥루기륜에는 기계장치에 공급되는 물의 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물병을 든 인형이 물그릇의 북쪽에 서있다가 그릇에 물이 비면 물을 부어넣도록 되여있다.

또한 물그릇에 물이 중간정도 들어있으면 그릇이 바로 서고 물이 가득차면 그릇이 기울어져서 물의 량이 조절되도록 되여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밀한 자동장치를 15세기에 창안제작하였다는것은 당시의 설계가들이 기계구조에 대한 지식과 제작경험을 많이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옥루기륜의 제작원리와 기계장치들은 매우 정교하고 기묘하여 우리 나라 기술발전사의 자랑으로 된다.

*　　*　　*

중국 심양시 화평구 북시2가 2호(5호동 1현관 2층 1호) 김명덕누이 앞

조국의 뿌리가 될때

누이 밤이 깊어가오.

내옆에서 재롱을 부리며 놀던 손자 원건이도 깊은 잠에 들었수다.

그러나 왜서인지 나는 잠이 오지 않수다.

평양에서 누이를 만난지 여러달이 흘렀지만 그것이 어제일처럼 여겨지며 누이가 꿈에 보이군 하오.

누이, 솔직히 말하여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누이를 만났을 때 나는 부끄러웠소. 그것은 누이는 나이가 여든이 넘었고 다리도 남들처럼 성성하지 못하지만 조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소. 여러개의 국기훈장과 공로메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기념메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표창장, 지원증서들에 누이의 그 마음이 모두 담겨져있었소.

정말이지 통일거리를 지날 때면 나는 누이가 이 넓고 시원한 거리가 건설될 때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지군 하오. 애국의 길에서 누이는 한쪽다리를 잃고도 조국을 위해 묵묵히 자기의 마음을 바치고있소.

누이의 모습은 나와 우리 가정의 거울이요. 그러나 우리는 누이만큼 일하지 못했소.

복속에서 복을 몰랐소.

지금 우리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첫째 선주는 평천구역인민병원 의사로, 둘째 성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외국어학과 부강좌장으로 또 넷째 성필은 남포시인민병원 의사로 일하고있는것이 다 제도가 좋아서 아니겠소. 내가 뭐 자식들 《학비》를 벌겠다고 노력한게 있소, 아니면 제 자식 앓을 때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뛰여다니길 했소. 내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까지 돈 한푼 안들이고 대학공부를 하고 병이 나면 거저 치료를 받고있수다.

나라의 혜택으로 한 10년전에 백내장수술을 받은 우리 로친은 나보다도 신문을 더 잘 보고 있소.

그리고 선주와 성필이도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잘해서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불리우고있소.

특히 나와 같이 살고있는 성필은 매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전람회와 전시회들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있수다. 몇년전에 진행한 제14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는 그가 연구한 괴사조직박피기가 1등을 하였소. 그게 뭔고하니 화상괴사조직을 떼내는 장치라는것인데 종전에는 수술칼을 대여 출혈이 많던것을 기계로 하면서 출혈도 줄이고 완치도 빠르게 한다오. 환자들의 호평이 대단하다오.

성철이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하여 과학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자고 밤을 패며 교수준비를 하고있소.

조국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수다.

5년전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을 때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수다.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 그저 고모만큼 해라.》

그날 난 온 가족과 함께 생일상에 놓았던 많은 음식과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중요대상건설장으로 달려갔수다. 정말 잊지 못할 날이였소.

누이, 두서없이 이야기했다고 욕하지 마오. 하지만 이 한몸 진할 때까지 조국의 뿌리가 될 결의는 확고하오. 나나 누이나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든든히 서있는 거목의 뿌리가 될 때 조국이 더 강해지는게 아니겠소.

계절이 바뀌여 날씨도 찬데 몸건강에 류의하기를 바라오.

그럼 이만 쓰겠소.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산동
37인민반 김광만동생 올림

한 영웅이 걸어온 길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총국 부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오박을 알게 된것은 지난해 11월초 어느날이였다.

그날 오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았다.

그의 앞가슴에서는 로력영웅메달이 눈부시게 빛나고있었다.

촬영가들은 감격에 젖어있는 그의 모습에 렌즈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여보, 더 환하게 웃으세요.》라는 안해의 정다운 목소리가 오박의 귀전에 나직이 울렸다.

그는 좀처럼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였다.

(내가 뭐라고… 난 공화국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는데…)

순간 그의 눈앞에는 쯔시마앞바다의 검푸른 물결이 안겨들었다.

오 박

동백꽃과 감귤향기로 유명하다는 조선남해바다가 제주도를 울며 떠났던 오박의 부모는 일본의 쯔시마에 닻을 내리게 되였다.

그의 부모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장차 커서 박식한 사람이 되여 큰일을 하라는 념원을 담아 오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후날 오박의 어머니는 그가 태여난 후 몹시도 울었다고 하면서 그럴 때면 낯설은 이국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는 기막힌 신세를 너도 알아서 그렇게 우느냐고 함께 울군 하였다고 옛말삼아 말해주었다고 한다.

…

우리는 오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싶었다.

얼마전 우리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는 수화기를 든채 누군가와 이야기를 계속하고있었다.

《내 나이가 어쨌단 말이요? 난 아직 앓는데가 없고 또 안해의 병도 차도가 있어 이젠 마음을 놓고있던터였소.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나가 흙 한삽이라도 뜨고싶은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오?》

평소에 말이 없고 사람좋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군 하던 오박이였던지라 우리는 그가 대단히 언짢아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수화기를 놓은 후 한참동안이나 말이 없던 오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자선생도 보다싶이 난 특별히 앓는데도 없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사람들은 내가 공훈과학자이고 로력영웅이라고 이젠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시절을 돌이켜보는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세기 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이 벌어지던 때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 연구사로 일하던 오박은 무산-청진사이의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제작연구집단에 망라되게 되였다.

관이 고압에 견딜수 있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을 라선형으로 용접하자면 합리적인 슬라크용접재료를 개발하여야 하였다.

그는 위험을 동반하는 실험에 달라붙었다. 수십차례의 실험이 진행되였다.

때식을 잊고 며칠밤을 지새우는 때가 많았다. 사나운 겨울철의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과 작업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오박을 비롯한 연구집단은 슬라크용접재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후 라선형용접관제작에서도 끝끝내 성과를 이룩하고야말았다.

들끓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은 오박의 과학연구의 터전이였다.

그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에 리용되는 대형배풍기를 제작할수 있는 새로운 용접재료를 찾아냈으며 서해갑문건설장에서는 수중용접기를 개발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나간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식의 갱질관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방도를 찾아내여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었다.

나라에서는 그의 앞가슴에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었으며 공훈과학자로, 박사로, 전국영웅대회의 높은 연단에 세워주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열렬한 사람은 영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마음은 언제나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수 있게 합니다.》

그는 오늘도 애국의 길, 헌신의 길에서 자기의 참된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로운 착상을 안고 연구사들과 협의하고있다.

은정어린 사랑의 일흔번째 생일상을 받아안고

야 화

림제의 신발

소설 《재판받는 쥐》와 많은 시를 남긴 림제가 어느날 대낮에 술집에 들어갔다. 벌써 젊은 량반 한패거리가 모여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어대고있었다. 림제가 그들의 곁에서 상을 받아 술을 마시려는데 문가로 또 한패의 젊은 량반들이 몰려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은 방안에 들어서려다가 먼저 들어가있는 젊은이들을 보더니 중얼거리며 돌아서나갔다.

《서인들이군, 서인들이야.》

그들은 동인인 모양이였다.

그 광경을 보고 림제는 허구프게 웃었다. 대궐에 드나드는 량반네들의 권력다툼으로 당파가 갈라져 요즘은 동인이다, 서인이다 부르며 싸운다더니 그것이 항간에까지 번져져 철모르는 젊은 량반들끼리도 서인이요, 동인이요 하면서 경원시하니 이 아니 웃을 일인가.

또한 가관인것은 돌아서나갔던 젊은 량반패거리들이 다시 몰려들어와 한켠을 차지하고 앉는것이였다. 아마 무엇이 부족하여 서인을 피해 술집에도 못 들어가랴 하는 생각을 하였던 모양이였다. 그리고는 서로 돌아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대고 경쟁삼아 마시고 떠들어댔다.

서로 풋낯이나 아는 처지들이지만 당파의 여독으로 이런 술집에서까지 서로 등대고 소 닭보듯 대하니 장차 나라의 꼴이 어찌될것인가. 가슴이 답답해와서 림제는 연방 술을 마시였다.

술을 마시고난 림제는 비칠거리며 문가에 나서서 신발을 찾았다.

《내 신발이 어데 갔느냐?》

이렇게 고아대면서 이 신발, 저 신발 마구 쥐여던지며 고르던 림제는 오른발에는 짚신을 신고 왼발에는 가죽신을 신고서 문밖에 매여놓았던 자기 말에 올라탔다.

그러자 그의 구종이 달려와 말고삐를 잡으며 아뢰였다.

《도련님은 술에 취하셨나봅니다.》

《내가 취했다구?》

《예, 가죽신과 짚신을 짝짝으로 신으셨나이다.》

그 말에 림제는 호탕하게 웃고나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흠이냐? 길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 날더러 가죽신을 신었다 할것이구 길 왼편으로 가는 사람은 날더러 짚신을 신었다고 할것이니 누가 제 짝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어서 가자. 서울 네거리로라도…》

모든것이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에 신발쯤 짝을 어겨 신는거야 무슨 큰일이랴 하는 기색이였다.

문밖에서 벌어진 신발소동에 자기 신발을 바꾸어신고 가지 않는가 하여 내다보던 두패의 젊은 량반들은 멀어져가는 림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 * *

고향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는 사람들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취재길에 서였다.

수양산기슭을 지나던 우리는 나무밑둥에 감은 새끼줄을 다시 손질하기도 하고 갓 심은듯 한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에 자기의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였다.

그들은 다름아닌 해주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 산림경영소 학현조림작업반 성원들이였다.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신은선은 말하였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이기에 우리는 지난해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강하천을 정리하였으며 다님길에 블로크도 새로 깔아놓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무던히도 호기심을 끌어 우리는 그와 함께 해주시내에로 향하였다.

백두산3대장군께서 수많이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이야기며 해주시가 군사분계선을 지척에 둔 도시이기때문에 특별히 잘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 예로부터 남쪽에 큰 바다를 낀 고을이라고 하여 해주로 불리웠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며 우리는 그와 함께 시내를 돌아보았다.

정말 그러하였다. 해주시가 몇년전에 비해 훨씬 달라졌다는것이 한눈에 알리였다. 도로를 따라 쭉 늘어선 다층살림집들이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는가 하면 걸음길에 깐 보도블로크들이 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경쾌히 해주었으며 여기저기에 꾸려진 공원과 로라스케트장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를 자기 힘으로 꾸려가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이 저절로 가슴에 새겨졌다.

우리가 시내를 따라 걷고있는데 호안공사를 멋있게 한 광석천이 눈에 안겨왔다.

그러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해에 우리는 호안공사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 광석천만 하여도 …》라고 말머리를 떼였다.

시에서는 시안의 여러 내천에 대한 호안공사를 할 결심을 내리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나서자 주민들이 이에 호응해나섰다. 낮에 밤을 이어 일군도 주민도 따로없이 서로 돌을 져나르고 미장을 하며 온 시가 부글부글 끓었다.

최근년간 이곳 사람들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컸다. 그들은 산에는 이깔나무, 잣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 경기질영양단지공장과 회전식분무기, 해가림발을 한 온실 등을 갖춘 양묘장을 건설하였으며 도로보수도 품을 들여 하였다.

혈육을 그리는 최은실의 형제들

해주시의 무성한 참대숲

이와 함께 거리의 잔디밭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등을 가로수로 심었으며 아침저녁 물을 주며 정성껏 관리하였다.

그들의 애국의 마음은 인민군렬사묘, 해주백화점과 은덕원, 해주기초식품공장과 옥계물놀이장 등 시안의 그 어디라없이 어려있었다.

여름이라면 달아오른 몸을 옥계물놀이장에서 시원히 식혔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물놀이장을 따라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느 한 건물이 보였다. 그곳은 계남목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들에게 봉사해주는 계남목장특산물식당이였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최은실은 지난해에 자기들은 식당 1, 2층과 함께 야외식당도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해놓았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인민들이 더 많은 덕을 볼수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해주시구제유치원에서

부용당

그런데 그의 말하는 품이라든가 목소리, 손짓까지도 어느 한 해외동포의 모습과 너무도 방불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저… 실례이지만 해외에 친척되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어쩐지 너무도 비슷해서…》

그는 빙그레 웃으며 언니가 중국에 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언니는 우리들을 만날 때면 늘 나라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돕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언니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동포들과 함께 해주에 오면 우리 식당에도 꼭 들려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는 마을과 일터, 고향을 꾸려가기에 해주사람들의 긍지가 그리도 큰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음 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나무를 심고있는 청년학생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든다.

활발히 움직이는 동포조직들

해외동포들에게는 자신과 선친들이 두고온 조국이 있다. 동포들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내려진 그곳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바로 그들과 조국을 뜻과 숨결로 이어주고 각

지에 흩어져사는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켜주는것이 동포조직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아래 각 지구협회와 지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총련합회적으로 모범지구협회로 소문난 료녕지구협회만 놓고보아도 이곳 일군들은 동포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사실 이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애국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다운 삶은 애국에 있기에 협회에서는 동포들로 하여금 은혜로운 조국이 있어 이역에서도 조선사람의 긍지를 안고 산다는 자부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탬을 주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그를 위해 태양절과 광명성절, 9월 9일(공화국창건기념일)을 비롯한 조국의 뜻깊은 명절들을 맞으며 기념보고회와 사진 및 도서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고있으며 매달 학습하는 날을 정해놓고 《로동신문》, 《금수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신문, 잡지들을 통한 독보를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총련합회와의 련계밑에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실지 체험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조국의 숨결을 느끼도록 하고있으며 그들이 돌아오면 이야기모임을 실감있게 조직하고있다. 그 과정에 많은 동포들이 조국의 현실을 잘 알고 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고있다.

협회에서는 동포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잘 해나가고있다. 지난해 대련시에서 사는 황동포가 심하게 앓을 때 황영두회장을 비롯한 협회일군들은 먼길을 기차를 타고 달려가 성의껏 도와주었다. 동포들의 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여러가지로 마음을 쓰며 뛰고 또 뛰는 협회일군들의 모습은 동포들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러한 모습은 총련합회의 여러 지구협회들과 베이징시, 왕청현, 화룡시, 목단강시, 계서시, 해림시 등 많은 지부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동포들로 하여금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뜻깊은 명절들에 강연회, 회고모임 등을 실감있게 진행하고 그분들의 사적이 깃든 길림육문중학교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는 길림지구협회,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성명과 담화 등을 발표하며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을 열렬히 지지성원하는 중남지구협회, 동포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민족적향취가 흐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심양시지부, 지부를 화목하고 단합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합쳐가는 훈춘시지부와 녕안시지부…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24년전 3월 3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애국의 길을 활력있게 걸어온 동포조직들이다.

그 조직과 더불어 동포들은 자기의 가정과 조국을 하나의 뉴대로 잇고 동포사업, 통일애국사업에 헌신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꽃바구니를 정성껏 마련하는 연길시지부 일군들

중국 길림시에 있는 북산공원 약왕묘 지하실을 찾은 재중동포들

사진 및 도서전시회를 통하여 조국을 더 잘 알기 위한 학습을 하고있는 심양시지부 동포들

인상기

정깊은 모습

1974년이후로 조국방문이 처음이다.

그사이 많은 곳이 달라졌다. 특히 평양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가는 곳마다에 초고층살림집들과 인민극장,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릉라곱등어관과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일떠섰다.

둘러보면 조국의 많은 곳이 달라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것이 있다. 그것은 조국인민들의 친절성이다.

뻐스를 타고 평양의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살펴보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마다 활기에 넘쳐있고 인상들이 밝다. 실지 그들과 마주해보면 누구나 친척, 친우들처럼 살틀히 대해준다. 숙소의 안내원들만 놓고보아도 그들은 조국을 방문한 우리 해외동포들을 위해 음식도 잘해주도록 하고 건강도 세심히 보살펴준다.

나는 방문기간 뜻하지 않게 병을 만나 평양친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였는데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의사, 간호원들은 검진으로부터 치료, 약처방 등에 이르기까지 환자들을 위해 극성인데 그들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였다. 환자에 대한 정성을 자기들의 의무로 간직한 그들을 보며 나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국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바로 이런 인민의 나라이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정을 나누고 행복을 꽃피워가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랑과 정으로 위훈을 창조해가는 조국인민들의 정깊은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 김성춘

인 상 기

녀성들의 세상

여러번 고국에 왔다 갈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고국은 녀성들을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내세워주는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돌아보고나니 더욱 생각이 깊어진다.

이곳은 세위지자마자 녀성자신들도 미처 모르고있던 병을 찾아내여 빠짐없이 치료해준 사랑의 이야기들을 안고있었다.

고국에서는 녀성들을 위한 병원, 녀성들을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덜어주기 위한 상점과 공장들이 도처에 현대적으로 일떠서고있었다.

나는 고국땅 가는 곳마다에서 밝은 웃음이 넘친 녀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였다.

지난날 조선의 녀성들은 대대로 봉건의 울타리속에서 눈물만 흘리였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오늘날 고국에서는 그들이 겪었던 비참한 운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있다.

고국의 녀성들은 누구나 사회의 한성원으로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있으며 박사도 되고 영웅도 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되고있다.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을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고 적극 내세워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한가정에서도 내인들의 얼굴에 그늘이 비끼면 온 집안이 어두워지고 기쁨이 넘치면 부모, 남편, 자식할것없이 가족성원모두의 가슴도 봄날처럼 따뜻해지기마련이다. 녀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고국이기에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여나가고있다.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나는 고국의 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

로씨야고룡련 녀성협회 회장 김 조야

좌담회

굳건히 이어지는 재중총련의 대

참가자: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리국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부위원장
한성옥: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국장
김송미: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김창옥: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
홍정혁: 본사기자

홍정혁: 이역에서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여 반갑습니다. 이 기회에 나날이 발전하고있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김영녀: 태양이 없는 꽃을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우리 청년련합회의 사업과 활동의 발전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중시사상을 펼치시고 조선청년운동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우리 동포청년들이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민족의 아들딸답게 귀중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이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우리 재중동포청년들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라는 당당한 조직을 가지고 하나로 단합되여 오직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리국화: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조국에서 청년절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던 3년전 8월이 깊이 새겨져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행사에 우리 동포청년들을 대표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큰절을 올리는 우리 위원장을 두팔로 안아 일으켜세워주시고 애국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결의도 들어주시였습니다.

한성옥: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우리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그렇듯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청년련합회는 참으로 자랑찬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송미: 우리 청년련합회에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어엿한 조직일군으로 자라 동포사회에서 한몫하는 청년들도 있고 조국의 명승지와 력사유적들을 돌아보며 슬기롭고 재능있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홍정혁: 지난해 가을 여러분이 조국을 방문하여 칠보산을 관광하던 일이 돌이켜집니다. 당시의 화폭이 잡지 《금수강산》에도 실리였지만 여러분의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였습니다.

김창옥: 그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조국에 도착하자마자 칠보산 등산길에 올라 만물상도 부감하였고 해칠보의 해변가에서 해수욕과 체육유희경기도 진행하였습니다.

칠보산에서의 3일밤 4일낮, 그 길지 않은 나날에 우리는 조국의 청년들에 비해볼 때 너무도 해놓은것이 없는 우리를 위해 조국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김송미: 그렇습니다.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절감하는것은 한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이고 이 은혜로운 조국을 찾아주고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입니다.

홍정혁: 그래서 여러분을 비롯한 재중동포청년들이 통일애국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녀: 믿음과 사랑에는 응당 보답이 따라서야 합니다.

우리 청년련합회에서는 모든 재중조선인청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습니다.

리국화: 우리는 해마다 조국에서 주요명절들을 맞을 때면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기념보고회와 사진 및 도서전시회 등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유서깊은 곳들을 답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년전 사연깊은 동북의 삼도만에서 많은 진달래꽃나무를 정히 떠가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있는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심은것이라든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더 잘 모시기 위해 **김일성김정일**기금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는것은 그대로 우리 재중조선인청년들의 뜨거운 충정심의 분출입니다.

김창옥: 우리 길림지구협회 성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주변을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절과 광명성절 등을 맞을 때마다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그이의 동상앞에 진정하고 애국충정의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한성옥: 우리 청년련합회에서는 동포청년들이 조국의 들끓는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찾아가 지원을 하면서 조국의 청년들과 애국의 숨결을 같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내외호전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에는 청년련합회의 전체 성원들이 재중조선인청년별동대를 무어 조국인민들과 한전호에 설것을 궐기해나섰습니다.

우리는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살지만 조국인민들과 달리는 살수 없는 조선민족입니다.

김송미: 지금 우리 청년일군들은 이역에서 나서자란 동포청년들이 전세대동포들처럼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도록 그들의 앞채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저는 새것에 민감하고 정서가 풍부한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지금 만들고있는 애국주제의 노래편집물들을 더 많이 내놓아 동포사회에 조국애, 민족애가 더욱 진하게 흐르게 할 결심입니다.

김영녀: 두해전 11월 우리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제4차대회를 진행하면서 청년련합회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진실한 해외청년조직, 애국의 대들보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대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재중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홍정혁: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고국방문

동포들의 기쁨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3중모범지부 조국방문단 -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나날이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목격하는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것이다.

지난해 9월 조국을 찾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 황영두동포를 단장으로 하는 심양시3중모범지부 조국방문단 동포들도 바로 그러했다.

모두가 년로한 나이들이였지만 조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약동하는 조국의 숨결을 한껏 안겨주었기때문이였다.

특히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평양민속공원을 참관하면서 조국의 높은 건축술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선흥식료공장상표가 붙은 당과류를 비롯한 식료품들을 맛보고 손이 모자라게 사며 마음이 절로 흐뭇해짐을 금할수 없어하던 그들이였다.

민병옥동포는 《몸은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한번 떨어져본적이 없는 조국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은 우리모두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체류기간 그들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으며 당창건사적관을 비롯한 여러곳도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기념돌전시장에서 심양시지부명의로 된 기념돌을 보며 그것을 마련하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황영두, 김태산, 김명덕, 오성자동포들은 자기들이 기증한 돌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았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동포들

친척들과 상봉하였다.

동포들은 친척들과도 뜻깊게 상봉하여 혈육의 정을 나누었으며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의도 굳게 다지였다.

평양민속공원에서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6)

- 남포지구 -

동포여러분, 이번호에서는 남포지구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포지구는 조선서부 대동강하류연안에 자리잡은 항구도시 남포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와우도를 비롯한 명승지들과 강서세무덤과 같은 력사유적들, 서해갑문과 공장과 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대상들이 있습니다.

남포지구는 이름난 강서약수와 신덕산샘물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에는 산지대의 식물로부터 간석지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퍼져있습니다. 산림속에는 메돼지, 노루, 여우 등이 있으며 야산지대에는 꿩, 딱따구리, 종달새 등이 있습니다. 청산벌을 비롯한 논벌들과 간석지, 대동강하류일대에는 왜가리나 백로같은 철새들이 많이 날아듭니다.

남포지구에서 관광지로 손꼽히는것은 서해갑문입니다.

서해갑문은 항구려관에서 서쪽으로 15km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8km의 날바다를 막아 건설한 서해갑문은 주체70(1981)년부터 주체75(1986)년까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습니다.

갑문에는 2천~5만t급까지의 배들이 드나들수 있는 3개의 갑실이 있고 언제우에는 기차길과 자동차길, 걸음길이 있습니다.

갑문이 건설됨으로써 서해지구농경지의 관개용수와 공업지대, 주민지대의 공업용수와 음료수문제가 해결되였으며 배통과능력이 높아지고 교통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였습니다. 서해갑문이 건설되기 전에는 남포에서 은률까지 200km를 돌아가야 하였지만 지금은 8km를 가면 됩니다.

또한 대동강하류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였습니다.

강서세무덤은 강서구역 삼묘리에 자리잡고있는 7세기 중엽의 고구려벽화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오늘까지 조선에서 알려진 100여개의 고구려벽화무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벽화인 사신도(백호, 주작, 현무, 청룡)가 있는것으로 하여 유명합니다. 사신도의 백호그림은 세계명화중의 하나로 꼽히우고있습니다.

강서세무덤은 주체93(2004)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습니다.

강서구역 덕흥리에 있는 덕흥리벽화무덤은 고구려 24대왕인 광개토왕시기의 무덤입니다. 무덤안에는 무덤의 년대를 가늠할수 있는 600여개의 글자가 씌여져있으며 강성한 고구려를 보여주는 벽화들이 그려져있습니다. 주인공이 벼슬을 지닐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과 무사들의 그림, 고구려 귀족들의 생활을 반영한 그림 등으로 벽화가 형상되여있습니다. 주체93(2004)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되였습니다.

남포지구에는 평양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태성호기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수려한 풍치에 잘 어울리게 들어앉은 골프장은 약 120정보의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면적은 45정보이고 그 연장길이는 7km정도입니다. 골프장은 18개의 홀로 되여있으며 매개 홀은 호수가를 따라 특색있게 이어져있습니다.

강서세무덤

하루에 100여명이 경기를 할수 있도록 기재들과 봉사인원들이 충분히 준비되여있으며 건물안에는 식당, 상점, 한증탕, 휴식실 등 봉사시설들이 편리하게 꾸려져있습니다. 경기를 하지 않는 방문객들은 깨끗한 환경과 맑고 푸른 태성호를 굽어보며 산책을 하는것만으로도 만족할수 있습니다. 당일려행으로는 리상적인 명소입니다.

남포시중심에서 서남쪽으로 4km가량 가면 자그마한 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때에는 섬이였던 와우도입니다. 바다에 소가 누워있는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산마루에 정각이 있고 앞에는 배놀이장과 해수욕장, 백사장, 물놀이장, 낚시터, 휴양소, 화초원 등이 있으며 배구장, 롱구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들도 꾸려져있습니다. 뒤에는 와우도회관이 특색있게 꾸려져있습니다. 회관에는 오락장, 무도장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남포지구관광에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도 있습니다. 농장은 평양에서 28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청산리는 벼를 비롯한 알곡을 재배하는 농업생산지인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49(1960)년 2월 바로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조선로동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지도사상, 대중지도방법입니다.

청산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농장으로 전변시키신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리에는 청산리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초, 고급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이 지구관광에서는 룡강온탕원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유명한 룡강온천을 리용하여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이나 수술후유증, 부인성질환,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피부병 등을 치료하였습니다.

룡강온천은 조선의 온천가운데서 광물질이 제일 많고 브롬이

서해갑문

천연기념물

대성산참등나무

평양에 있는 중앙식물원에는 천연기념물 대성산참등나무가 있다. 본래 다른 곳에서 수십년 자라던것을 주체50(1961)년에 이곳으로 떠다가 심었다. 참등덩굴들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큰 나무이며 꽃이 곱고 모양이 보기 좋으므로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 있다.

밑둥둘레는 2. 45m이다. 밑둥에서 높이 2m까지의 줄기는 울퉁불퉁하게 꼬여올라갔다. 줄기는 검은재색을 띤다. 줄기와 가지들은 오른쪽으로 감기는것이 특징이다. 갓 자란 가지에는 짧은 털이 있다.

잎은 어기여 나온다. 잎은 닭알모양처럼 둥그스름하며 끝은 뾰족하다. 잎의 길이는 3~7㎝, 너비는 1. 5~2. 5㎝이다. 앞뒤면에 털이 있는데 잎줄에 더 많다.

5~6월에 아름다운 보라색꽃이 핀다.

가을에 연한 밤색의 납작한 꼬투리열매가 달린다. 꼬투리의 껍질은 굳고 그안에 납작한 둥근씨앗이 1~3개가 있다.

* * *

온과 라돈이 들어있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매혹적인 온천입니다. 이곳에는 라돈가스욕, 온몸치료욕, 국소치료욕, 물맞이치료욕, 내복치료 등을 할수 있는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고 주변경치도 황홀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7개의 호동으로 된 온탕원의 매 방에는 치료실, 침실 등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으며 종합봉사건물에는 연회장, 당구장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이 꾸려져있습니다.

온탕원의 정원가까이에 있는 호수에서 잉어, 붕어를 직접 낚아 맛있는 료리도 해먹을수 있습니다. 온탕원에서 맛볼수 있는 조선서해 대합조개불고기는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길것입니다.

그럼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그 맛을 어디에 비길가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민족의 향기》란을 펼치자고보니 문득 지난해 4월 제19차 태양절료리축전장에서 만났던 한 동포녀성의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울려옵니다.

해방산호텔 료리사 임성순

《나는 평생 쉬움떡처럼 맛있는 떡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그 맛은 정말이지 어디에도 비기지 못하겠습니다. 새큼달달하면서도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것 같은 맛있는 떡을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루빨리 맛보이고싶습니다.》

그는 중국의 연변에서 조선족전통음식협회 회장을 하는 김순옥동포입니다.

그날 그는 평양에 온김에 쉬움떡 만드는 방법을 꼭 배우며 맛있는 쉬움떡을 한가득 사가지고 가는것을 잊지 않겠다고까지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연변에 사는 동포들이 김순옥동포일행이 평양방문기간에 배워간 쉬움떡을 만들어 맛보았을가 하고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쉬움떡만들기가 수월하지 않기때문이랍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있다싶이 우리 민족음식들가운데는 송편, 절편, 찰떡, 설기떡 등 떡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쉬움떡은 맛이 아주 좋은 반면에 가공자의 풍부한 경험과 뛰여난 손감각을 요구로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태양절료리축전에 대한 말이 난김에 우리는 그때 진달래방울쉬움떡을 내놓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해방산호텔 료리사 임성순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였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한다면 그는 쉬움떡을 20여년전부터 만들어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에게 맛보인 솜씨있는 료리사입니다.

그럼 그의 말을 아래에 적어보겠습니다.

《쉬움떡은 말그대로 흰쌀가루를 감주로 반죽하고 쉬워서 찐 고유한 조선민족음식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화떡, 증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기간 쉬움떡을 만드는 과정에 터득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쉬움떡 만드는 방법에서 기본은 본떡 다시말하여 밑떡을 잘 준비하는것입니다.

본떡이란 쉬움떡을 발효시키는데 쓰이는 반죽물입니다.

그럼 먼저 본떡을 만들어봅시다.

200g정도의 흰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물기가 좀 돌게 짓습니다. 뚜껑있는 그릇에 밥을 담고 꼭 봉하여 28~30℃되는 곳에 24시간동안 놓아둡니다. 그리고 길금가루 20g을 골고루 섞은 다음 다시 뚜껑을 봉하고 12

시간정도 삭힙니다. 다 삭은 밥을 보드라운 채에 거르면 진한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감주입니다.

흰쌀 1㎏을 보드랍게 가루내여 90℃의 물 0. 5L정도와 함께 반죽을 한 다음 거기에 감주를 두고 다시 반죽을 합니다.

반죽물이 담긴 그릇을 밀봉하여 28℃되는 곳에서 8~12시간정도 발효시킵니다.

발효된 반죽물 한국자정도를 뚜껑이 있는 조그만 유리단지에 물 0. 1L정도와 함께 넣고 선동실에 건사하였다가 다음번 쉬움떡을 만들 때 씁니다. 발효된 반죽물을 본떡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효된 반죽물에 사탕가루 200g, 중조물 50ml를 넣어 골고루 저은 후 깨끗한 보우에 골고루 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추, 잣 등으로 고명하고 증기가마에서 20분간 찝니다. 떡이 다 익으면 식힌 후 겉면에 참기름을 바르고 보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아냅니다.

쉬움떡은 눈같이 희면서 상쾌하고 독특한 맛이 나야 잘된것으로 평가됩니다.

쉬움떡은 고루 부풀고 질긴 맛이 있어야 하며 물기함유량은 48%정도, 산도는 0. 06%, 당함유량은 8%이상이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임성순료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쉬움떡을 맛이 있으면서도 수월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청이 있다면 조국에 오실 때 여러분이 만든 쉬움떡을 우리들에게 한번 맛보였으면 하는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려보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민족적정서가 풍부한 널뛰기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슬기와 용맹을 키워왔다.

평양민속공원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민속박물관에는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여러가지 민속놀이와 관련한 력사자료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정월대보름날 명절옷을 입은 녀성들이 널뛰기를 하며 담장밖을 내다보는 사판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다.

널뛰기는 고임목을 중심에 놓은 긴 널판의 량끝에 각각 한명씩 올라서서 공중으로 오르내리기를 엇바꾸어 진행하는 조선민족고유의 체육종목으로서 먼 옛날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급되여왔다.

널뛰기는 녀자들이 한데 모여서 즐기군 하였는데 설날과 대보름날에 성황을 이루었다. 량끝에 선 두사람이 겨끔내기로 뛰여오르고 내리는 장면은 참으로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옛날말에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에는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처녀시절에 널뛰기를 많이 해야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녀성들이 널뛰기를 하면 몸과 마음을 단련할수 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실제적으로 널뛰기는 다리힘과 페활량을 키워주어 몸단련에 좋을뿐아니라 전신운동으로서 몸매를 곱게 해준다.

전해진데 의하면 봉건적구속으로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수 없었던 녀성들이 밖을 내다보려고 담장결에 널을 놓고 뛰였다고 한다.

지난날 봉건의 울타리속을 넘고싶은 녀성들의 마음을 담고있던 널뛰기가 오늘 수많은 녀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화되고있다.

널뛰기경기는 곧추뛰기, 엇바꾸어뛰기, 재주뛰기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곧추뛰기는 널판의 탬성과 조약력을 리용하여 높이 그리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뛰여 오르내리기를 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평가한다.

엇바꾸어뛰기는 4명이 한조가 되여 주어진 회수로 엇바꾸어가면서 높이뛰기를 겨루는 형식으로 한다.

재주뛰기는 부채, 반고, 소고, 댕기, 륜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할수도 있으며 혹은 맨몸으로도 다양한 동작을 아름답게 수행하는것으로 평가한다.

경기는 개인전, 단체전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순위는 제정된 시간안에 어느 조가 또는 누가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뛰는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른다.

널뛰기경기는 민족적전통을 살려 그 차림새도 조선식으로 하고있다. 선수들은 반드시 조선치마저고리를 가뜬히 차려입고 허리띠를 매고 그에 알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널뛰기에 쓰이는 널은 탬성이 좋은 나무로 길이 4. 5~5m, 너비 35~40㎝, 가운데부분의 두께 7~8㎝, 량끝부분의 두께 3~3. 5㎝되게 만든다. 고임목의 높이는 30~35㎝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적 정서가 풍부한 민속놀이인 널뛰기를 교예로도 창조발전시키고있다.

조선민속박물관 강사 리은경

고구려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고구려는 B. C. 277년에 시조 동명왕(고주몽)에 의해 세워져 A. D. 668년까지 근 1 000년간 존재한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이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봉건국가의 체모에 맞는 정연한 국가정치구조를 갖추고 나라의 모든 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였다.

고구려의 정치구조에서 특징적인것은 국가통치체계와 질서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중앙집권제에 기초하여 매우 조밀하게 째여져있었다는것이다.

국왕(황제)은 전제군주로서 제후왕들과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료들우에 군림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국왕중심의 국가통치체계와 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데 있었다.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직제도를 보면 전기에는 대보, 좌보, 우보와 국상, 중외대부, 대신, 상(재상), 평자, 부장 등이 있었으며 후기에는 막리지, 대막리지, 태대막리지, 대신, 태학박사, 국자박사, 대학박사, 사인, 통사, 전객(전서객) 등이 있었다. 이밖에 국왕의 중앙집권적, 전제적인 권능을 높이기 위하여 봉건귀족들에게 일종의 명예벼슬칭호인 작위를 주는 봉작제도도 있었다.

고구려는 이미전부터 내려오던 귀족민주주의적 합의기구인 제가평의회를 5명의 최고위급관료들이 나라의 중요정사를 토의하여 국왕의 결정을 받는 5관협의제로 개편함으로써 나라의 대내외문제들을 처리하는데서 봉건왕조의 전제권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지배계급내부에서의 계층적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관등급(벼슬등급)제도인 봉건적위계제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직무가 없는 관료들에게 해당한 사회적대우를 해주는 제도인 문관계(산계)제도를 내오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정비보강하여 국가통치체제를 더욱 완비하고 봉건세력의 특권적지반을 넓혀나갔다.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역시 광활한 령토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할수 있게 상당히 째여있었다.

고구려는 나라의 전지역에 대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성》, 《홀》, 《곡》, 《련》, 《가》, 《탄》 등으로 불리우는 지방행정단위들을 내오는 성읍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주, 군, 현, 진제도를 내오고 현아래에는 향, 부곡, 리, 촌 등 하부말단행정단위를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단위들을 맡아보는 지방관리인 장관들을 통하여 국왕의 통치가 최하층 인민대중에게까지 실현되게 하였다.

고구려는 나라의 변방지역에 후국과 속국, 속령을 두었으며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방의 중심지에 별도라고도 불리운 부수도를 둠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왕의 중앙집권적통제와 지배를 강화하였다.

고구려의 봉건적통치체계와 질서는 가혹한 봉건법률과 군대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철저히 안받침되여있었다.

고구려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억누르고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냈으며 그 대표적인것은 373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률령》을 들수 있다. 이것은 당시까지의 주요법령들을 종합체계화하여놓은 고구려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이였다. 봉건적의무병제와 상무기풍에 의해 군사제도가 발달한 고구려에는 중앙과 지방에 여러 군종과 병종에 해당하는 전문군사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봉건통치계급과 통치제도의 안정을 담보해주고있었다.

이처럼 고구려는 매우 정연한 정치구조를 가진 발전된 첫 봉건국가로서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세계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며 민족사를 빛내이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영성

유모아

독약을 먹다

주인이 일보러 나갈 때 어항과 꿀이 담겨진 병을 하인에게 주며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병에 든것은 독약이니 주의해라.》

주인이 떠난 다음 독약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동한 하인이 맛을 보고는 꿀 한병을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어항도 깨뜨려버렸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인은 땅에 누워서 《주인님, 내가 그만 어항을 깨뜨렸는데 배상할길이 없어 자살하려고 독약 한병을 다 마셨어요. 나는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 * *

평화적환경은 북남관계개선의 전제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제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환경을 조성하는것은 나라의 통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평화는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평화적환경이 마련되여야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공고화될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를 입을것은 북과 남의 겨레이고 강토이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삼천리강토가 내외호전세력들의 참혹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 일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지난해에도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의 발표, 그에 따라 취해진 주동적인 조치들 그리고 북남고위급접촉의 실현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 공화국정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발표를 비롯하여 공화국은 온 한해동안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량있고 성의있는 노력을 시종일관 기울여왔다.

공화국의 대범한 조치들과 적극적인 노력은 내외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공화국의 조치들과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다.

남조선당국은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동족의 노력에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년초부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날과 달을 이어가며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된것으로 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사라지고 핵전쟁의 위험만이 짙어갔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의 전제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리과대학 교원 정경복

《북조선, 유엔, 전쟁선전》

- 로씨야인터네트신문에 실린 글 -

2014년 11월 30일 로씨야인터네트신문《동방에 대한 새로운 관찰》에 카나다상원 법협회의 성원이며 국제형사전문변호사인 크리스토퍼 블래크가 쓴 《북조선, 유엔, 전쟁선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방의 선전기계들의 사용은 현재 극도에 이르렀으며 복종하지 않는 민족들과 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거짓선전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범죄적인 압력행위로 터질 지경까지 되였다.

미국이 유엔인권리사회의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한 범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주도한것은 이러한 선전기계들을 리용한 결과이며 그것은 또한 유엔이라는 기구를 세계를 주도하고 지배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 실례이기도 하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그자체는 놀랍기 그지없다. 다만 내용이 완전히 고안해낸 내용이기때문만이 아니라 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다고 주장한 범죄적내용들이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자체내에서도 존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위선은 사람들을 기절시킬 정도였다. 보고서의 단락 31에서는 위원회가 진행한 공개청문회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남조선당국의 도움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다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대세력들로서 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통계자료, 모임장소, 번역원, 기술, 안전, 인쇄물 중요하게는 증인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3명의 성원들인 오스트랄리아인 마이클 도날드 커비, 쓰르비아인 쏜야 비쎄르꼬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다같이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들에 가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한 특별보고자인 다루스만이 발표한 첫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기초로 리용되였다. 그는 미국의 벗으로 잘 알려져있는 기회주의자로서 인도네시아의 골카르당의 성원이였다. 이 당은 미중앙정보국의 도움으로 1965년 50만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좌익계 및 로동계 관련 운동가들을 살해한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현재도 미국정부의 활동그룹인 미국인도네시아협회의 고문으로 되여있다. 미국인도네시아협회 회장은 대비드 메릴이라는자로서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여러 아시아 및 동유럽나라들에서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로 알려져있던 미국제개발처의 고위인물이였으며 방글라데슈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경력도 가지고있는자이다.

다루스만은 국제지도부재단의 성원이다. 이 재단의 후원자들은 죠지 더블유. 부쉬, 레흐 왈레싸와 같은 불온한 인물들이다. 이 재단은 이전 서방지도자들의 련합으로서 세계의 국가수반들에게 국가운영에 관한 조언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조언을 민주주의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있다. 이들이 내세우고있는 구호는 《지도자들에 대한 통치지원》이다. 물론 해당 나라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대표들을 내세워 그들이 자기 나라 지도자들의 국가통치에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명백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있다.

영국군대의 이전 장성이였으며 영국왕실해병대의 이전 총사령관인 로버트 풀튼씨가 재단의 책임취체역, 책임자로 되여있다. 재단은 스위스의 법인조직으로 되여있지만 본부는 런던에 있다. 이 조직의 재정이 쉐브론, 바클리즈은행, 골드맨 작스, 알카텔, BAE 씨스템즈, 엑쏜 모바일, 포드재단 등 각종 단체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울것이 없다.

조사위원회의 두번째 위원은 쏜야 비쎄르꼬로서 그는 쓰르비아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인물이며 나토의 편에 서있는 희세의 반역자로 간주되고있다. 그는 1990년대에 밀로쉐위츠대통령을 반대하여 미국, 나토와 로골적으로 공모하였으며 1999년 나토가 자기의 조국인 쓰르비아를 반대하여 진행한 폭격행위를 지지하였고 밀로쉐위츠를 헤그의 나토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주장하였다. 쏜야 비쎄르꼬는 미국제개발처의 후원을 받는 헬싱키인권그룹의 창시자 및 리사장이다. 헬싱키인권그룹은 미중앙정보국의 활동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련관되여있는 기구이다. 쏜야 비쎄르꼬는 또한 미

국정부의 공식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고위인물이다. 이 연구소의 리사회성원들은 국회의 승인밑에 미국대통령이 임명한다. 리사회의 성원들속에는 현재 챠크 헤이글과 죤 케리도 속해있다.

마이클 디. 커비는 도이췰란드의 쏘베트관할구역에서의 이른바 인권유린행위조사를 위해 서부베를린에 꾸려졌던 기구인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이전 위원장이였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자유법률가들을 위한 아메리카재단과 포드재단을 통하여 미중앙정보국으로부터 자금을 보장받았으며 이 기구의 창시자들속에는 이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인 알렌 덜레스도 속해있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전세계의 좌익계법률가들의 기구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대치되여 생겨난 기구였다. 이 글의 필자인 나역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의 한 성원이다. 커비는 1990년대 오스트랄리아를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한 인물로서 오스트랄리아에서의 영국의 군주정치를 유지할것을 주장한 립헌군주제를 위한 오스트랄리아인들의 모임의 창설성원이기도 하다.

이 3명의 인물들은 다같이 반기문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반기문으로 말하면 반부패정책을 반대한 유엔내의 감시부서인 내부감시실의 독자성을 비난한것으로 하여, 또한 2010년 《천안》호위기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행동을 촉구한 편향적인 행위로 하여 유엔내에 불안을 조성한적이 있는 인물이다.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견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기문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비위를 맞추면서 로씨야와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그가 미국의 꼭두각시인 남조선당국에서 고위외교관직책을 오래동안 차지하고있다가 부쉬대통령의 지지밑에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되였다는 사실을 놓고볼 때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의 불합리성은 시작부분에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보고서의 단락 2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사하여야 할 위반내용들에는 먹을 권리, 수용소, 고문 및 비인간적인 학대, 독단적인 감금, 차별, 표현의 자유, 생존권, 이동의 자유, 다른 나라에로의 랍치형태로 감행되는 강제적인 실종 등이 속한다.》

이것을 읽게 되면 조사위원회가 미합중국내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있는것 같은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구의 5분의 1이 기아를 피하기 위하여 식료구매권에 의존하고있고 수감자들은 개인기업에 의하여 강제로동력으로 리용되고있기때문이며 일반수감자들과 전쟁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가 일상적인 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인신보호령장이 중지당하고 전세계적범위에서 에둘러서 표현한다면 《범인인도》계획에 따라 강제적인 실종을 동반하는 독단적인 감금행위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있으며 또한 미국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한되여있고 이동의 자유는 정부가 승인한 나라에로만 제한되여있으며 또한 많은 소수민족 특히 흑인, 라틴아메리카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행위가 나날이 늘어나는 속에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미국정부에 의하여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인권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돌리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동기로부터 출발한 미국의 대리인들로서 보여주기식청문회를 조직하고 정치적목적의 보고서를 작성하고있다.

보고서의 단락 12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반박하여 2014년 9월 13일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167페지짜리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주장은 이 글의 필자뿐아니라 나토의 지배하에 있는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 그리고 르완다재판소에서 변호사들이 겪고있는 체험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것이 아닐수 없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검사들에 의한 증인들의 증언위조가 우선적인 조작방법으로 리용되고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또한 《보복이 두려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많은 외국인방문자들이 자기들의 체험과 정보에 대해 조사위원회와 의견을 나누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구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에 속해있는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을 대표하는 변호사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200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필자에게 있어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당시 대표단의 방문기가 미국전국법률가조합의 웨싸이트에 실렸다. 방문기에서는 조선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취급하였는데 조사위원회는 한번도 그것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견해를 듣기 위하여 우리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평양에 도착한 날 호텔에서 우리가 만났던 5명의 미군장교들도 만나지 않았다. 그 미군장교들은 미군유골조사팀의 성원들로서 그들의 사명은 조선전쟁시기 사망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확정하는것이였으며 그들은 조선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이른바 고립된 나라로 알려져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미군장교들이라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우리는 방금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착하였댔고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있는지 전혀 몰랐으므로 그들에게 이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놀랍게도 한 미군소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말을 인용하지도 말고 또 내 이름을 밝히지도 마시오. 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우리는 북조선은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는 2년째 와있는데 우리가 들은 말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곳은 좋은 곳이며 사람들도 우리를 잘 대해준다. 우리가 서방의 보도매체들로부터 들은 모든것, 우리의 상급들이 우리에게 한 모든 말이 완전히 그리고 모두 거짓말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 나라에서 떠나면서 우리가 만났던 두명의 꽁고외교관들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울렸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체험을 하였는가고 물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조선에 대하여 이전에 들은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선전이고 사기였다는데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사람들처럼 사는것이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있는 꿈이라고 말하였다.

이 모든것의 결론으로 말할수 있는것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선전행사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다음의 사실로부터 더 명백히 알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약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가 로마조약의 성원국으로 되여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만 회부를 진행할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약성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것을 안전보장리사회에 호소하였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선전도구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는 특별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것도 요구하고있다. 조사보고서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범죄적인것으로 묘사하여 서방사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 준비시키자는데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수리아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려객기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오스트랄리아에서의 G20(20개국 및 지역수뇌자)회의에서 오바마가 로씨야를 반대하여 취한 선전전략들과 다를바 없다.

쓰디쓴 경험은 일단 범죄딱지가 붙게 되면 전쟁의 앞잡이들이 곧 발동된다는것이다. 환영할만 한 징후는 부정적인 선전깜빠니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배격한것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깜빠니야의 기본목표가 나토동맹국들로서 그들이 다음번으로 계획된 전쟁을 지지하게 하며 최소한 그것을 막아나서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 * *

조선속담 (비겁성)

-친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남에게 해를 입힌자는 자기 죄로 하여 늘 불안해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어둑서니(어둑귀신)는 올려다볼수록 크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겁부터 먼저 먹고서 대담하게 달라붙지 못하면 점점 더 어려워짐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어둑서니는 볼수록 커만 간다

* 어둑서니(어둑귀신);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것처럼 잘못 보이는 물체나 헛것.

-우물가에 아이보낸것 같다

어떤 일을 맡겨서 내보내고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참고: ① 우물두덩에 애 내놓은것 같다
② 내가에 어린이 세워둔것 같다
③ 강변에 어린애 내놓은것 같다

-먼산보고 욕하기

앞에서는 꼼짝 못하다가 뒤에 가서 욕질하는것을 이르는 말.

-범 무서워하는 사람 산에 못 간다

어떤 일을 놓고 겁부터 앞세우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3. 1의 메아리

우리 민족의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뚜렷한 페지를 기록한 3. 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96년세월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속에서 주체8(1919)년의 3월 1일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당하던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가 삼천리방방곡곡으로 메아리쳐갔다.

낮 12시 종소리를 신호로 평양에서는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던 숭덕녀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리였다.

평양과 서울에서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3월 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개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의 조선인거주지들에서까지 반외세자주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났다.

20세기초 우리 민족의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뚜렷한 페지를 남긴 3. 1인민봉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격렬한 기세로 진행되였다.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일제는 우리 조국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중세기적공포정치의 총검밑에서 우리 민족의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권리와 재부를 강탈하고 끝없는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만들었다.

3. 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시위자들

3. 1인민봉기는 갑신정변과 위정척사운동, 갑오농민전쟁과 애국문화계몽운동, 의병투쟁을 통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화되여온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이 마침내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화산처럼 분출한것이였다.

그러나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위한 민족의 애국적투쟁에도 불구하고 봉기는 실패하였다. 그것은 전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이였다.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하세가와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룡산주둔 20사단무력까지 동원하여 적수공권의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을 시비하다 못해 봉기의 비밀을 사전에 일제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시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에로 부추기였다.

그때로부터 거의 한세기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도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통일독립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해방후 비법적으로 우리 조국 남녘땅에 기여든 미국은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고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미제의 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감히 어째보려고 발광하고있다.

3. 1의 메아리는 오늘 겨레에게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낼 때만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온 겨레는 3. 1인민봉기자들의 애국적기개를 이어받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윤홍기

고 화

《봄》

높고 낮은 산들이 빙 둘러선 한가운데의 아늑한 곳에 오붓한 마을이 자리잡고있으며 마을앞에는 넓은 벌이 누워있고 그끝으로는 맑은 시내가 굽이굽이 흐르고있다.

집들이 지붕을 맞댔고 골목골목과 앞뒤산에는 연분홍살구꽃, 복숭아꽃들이 피여났으며 실버들에도 연두빛잎들이 피여나 한껏 무르녹는 봄정기를 느끼게 한다.

이렇듯 아름다운 봄풍경이 그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생활과 어울려 진실감을 더해주며 고향산천을 보는것과 같은 흐뭇한 정취를 자아낸다. 남정들은 연장을 메고 걸음을 다그쳐 들로 나가고있으며 녀인들은 그들대로 집일에 바삐 돌아가고있다. 마당에서 모이를 쫓는 닭과 뛰박질하며 노는 강아지도 따스한 봄을 맞은 기쁨을 함께 맛보는듯 하다.

그림은 18세기에 창작되였으나 화가의 이름은 알려져있지 않다.

연풍과학자휴양소

연풍호반에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펼쳐졌다.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연풍과학자휴양소는 과학자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조국의 손길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58213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